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총력

군, 활성화 계획 수립 위한 주민공청회 가져... 정주 여건 발판 마련 초석

무주군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위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4일 전통문화의 집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앞둔 무주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가속화 시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위한 모든 역량과 힘을 쏟기로 다짐했다.

이날 주민공청회는 황인홍 무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강석구 충남대 교수(충남대 새희망 도시포럼 이사장)가 좌장을 맡고 김혜진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상준 LH 도시재생지원기부 박사, 성상희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시범단 단장이 패널로 참여,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날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침체된 지역상권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 "도시재생의 기반이 될 주거환경·교육문화·일자리 분야·상권관광에 대한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발굴에 열인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무주읍 원도심을 포함하는 읍내리 일원에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화 예술, 주거, 상권관광, 청년 및 노인층을 위한 문화 예술 콘텐츠를 발굴, 향후 정주 여건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초석이 될 사업으로 꼽힌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주민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모여 지역의 현안점을 찾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사업으로 현실화 시킨다.

이에 따라 무주군이 주민들과 함께 무주읍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착안한 무주읍 문화 창작 공간 조성, 무주 로컬 상권 활성화, 무주 어울림 센터, 감응의 무주 주거재생 프로젝트, 숲속 밤빛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외에도 향후 공모 접수 전까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추진 회의와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타 지역과 다른 특색 있는 도시재생



무주군은 지난 4일 전통문화의 집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앞둔 무주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모여 지역의 현안점을 찾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사업으로 현실화 시킨다.

이에 따라 무주군이 주민들과 함께 무주읍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착안한 무주읍 문화 창작 공간 조성, 무주 로컬 상권 활성화, 무주 어울림 센터, 감응의 무주 주거재생 프로젝트, 숲속 밤빛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외에도 향후 공모 접수 전까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추진 회의와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타 지역과 다른 특색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할 예정이다. 농촌활력과 김영종 과장은 "코로나 19와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열기가 높다"며 "2021년 2차 중앙공모 신청 예정인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정주여건에 마중물이 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읍은 오는 8월~9월 중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교통부 2021년 2차 중앙 공모에 신청할 계획으로, 올해 12월 중 정부의 최종 선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향후 공모 접수 전까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추진 회의와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타 지역과 다른 특색 있는 도시재생

/무주=전문선기자

무주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한 건물주 대상

무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여 준 건물주들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군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이상 인하는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부 재산세를 10%~50%까지 한도 내에서 감면하기로 했다.

건물 소유자는 6월 1일(재산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임대차계약 소상공인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임대료 인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

군은 "착한 임대인 운동"의 신청기

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착한 임대인들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군은 재산세 감면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산세 감면 외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구민들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인홍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과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며 "착한 임대인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2021년도 주민세(기본세율)를 100% 감면하는 등 위기 시대를 맞고 있는 군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군, 장계면 시가지 순환버스 시범 운행

장수군이 장계면 시가지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주민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장계면 시가지 순환버스를 시범 운행한다.

군에 따르면 순환버스는 4월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3일 오전 7시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첫 시범 운행에 들어갔다.

순환버스 노선은 장계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서 출발하는 2개 노선으로, 오전 7시~오후 6시까지 하루 6회(오전 3, 오후 3) 운행된다.

순환버스 요금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1회 1인당 500원이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 이용실적과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식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에 건설교통과장은 "순환버스 시범운영으로 행복콜 서비스에서 제외된 소외감을 해소시키는 물론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주민 중심

마을복지 체계구축 앞장

진안군은 지역의 복합적인 문제를 주민과 함께 예방·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주민 중심 마을복지 체계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4일 마을복지센터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3개 읍면(진안읍, 용담면, 백운면) 마을복지 추진담당 등을 대상으로 마을복지 계획 수립 사업 추진방향, 회계교육, 질의응답 등 설명회를 가졌다.

마을복지 추진단은 5월 읍·면별 발대식을 시작으로 ▲참여 역량강화 교육 ▲지역사회 조사 ▲전문가 컨설팅 ▲마을복지계획 수립 ▲마을복지계획 발표 ▲사업제발 발간 등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

추진단은 각 읍·면에서 추진 단장을 비롯해 10여명으로 구성되며,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 복지 문제를 발굴,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며 역량을 강화하고 진안군 주민 자치형 공공서비스 모델의 기틀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인삼뿌리썩음병 예방 전용 미생물 공급

진안군은 영농철을 맞아 고품질 인삼 생산을 위한 인삼뿌리썩음병 예방 전용 미생물 공급을 본격화하고 있다.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인삼뿌리썩음병 전용 미생물 배양시설을 갖추고, 작년 하반기부터 인삼뿌리썩음병 예방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다.

인삼뿌리썩음병 예방 전용 미생물인 바실러스 벨레넨시스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미생물로 인삼뿌리썩음병 병원균에 대해 강력한 길항효과를 나타내며 인삼뿌리썩음병 예방뿐 아니라 미생물 배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대사물질과 식물생장촉진 호르몬이 인삼의 생육을 촉진시키고 수량

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생물을 꾸준히 사용하는 인삼 재배 농가들은 "미생물을 살포한 인삼포장은 살충·살균제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인삼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란다"며 "인삼 수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고경식 소장은 "지금 공급하고 있는 미생물은 인삼뿌리썩음병 예방뿐만 아니라 인삼 생육이 촉진되고 수확량 증가에도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어 향후 진안 인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안전보험 혜택 받아요"

무주군이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 제도가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자 수는 올 3월말 기준 현재 2만4,259명(내·외국인 포함)이 가입한 상태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은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이 되며, 보장은 15개 항목에 이른다.

보장 내용을 보면 ▲화재·폭발사고 사망, ▲대중교통사고, ▲자연재해(일

사병·열사병 포함)사망,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감염병 사망, ▲스물손 내 교통사고 등이다.

보장금액은 최저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로 무주군민과 무주군에 주소를 둔 외국인도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사고증명 가능 서류, 신분증 사본 등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무주=전문선기자

'장수군 장례식장' 연말까지 건립

주민 장례비용 부담 완화

장수군에 주민들의 장례 편의를 위한 '장수군 장례식장'이 들어선다.

지난 4일 장수군에 따르면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장수군 장례식장'이 착공에 들어갔다. 장례식장은 장계면 무농리 709-60번



장수군 장례식장 건립공사

지 일대 6,390㎡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991.50㎡ 규모로 올해 연말까지 준공 될 예정이다.

장례식장 1층은 사무실을 비롯한 안치실, 입관실 등의 시신 처리시설, 2층은 접객실 및 조리실 등 문상 조문시설로 구성됐다.

장례식장 건립으로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나 인근지역 장례식장을 이용하던 장수군 북부권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연간 외지로 유출되는 장례비용이 지역에서 사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외지에서 장례를 치르는 주민들의 이동경비 등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장영수 군수는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장례식장 건립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장례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